

이슈

2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122호

존중과 배려로 더 빛난 올스타전

미리 한 사바시아 은퇴 선물 백혈병 카라스코 위한 기도 스팩스 소환한 추모 시간도

별들의 잔치. 메이저리그(MLB) 30개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운집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인공 자리를 잠시 양보했다. 시구자로 나선 C.C. 사바시아(뉴욕 양키스)와 카를로스 카라스코(클리블랜드),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타이러 스펙스도 스포트라이트를 함께 받았다.

10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MLB 올스타전의 시구자는 사바시아였다. 2001년 클리블랜드에서 데뷔해 올해까지 19년 통산 552경기에서 251승157패,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한 특급 투수다. 클리블랜드 시절이던 2007년 아메리칸리그(AL) 사이영상을 수상했을 만큼 개최 도시를 대표하는 투수이기도 했다. 비록 2008시즌 도중 트레이드로 클리블랜드를 떠났지만, 홈팬들은 올 시즌 은퇴를 선언한 그의 앞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사바시아는 9회 2사 후 투수코치로 잠깐 변신해 팀 동료 아롤디스 채프먼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5회 이후에는 카라스코가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카라스코는 2009년 클리블랜드에 데뷔해 10시즌 짜 '윌탐펜'으로 활약 중이다. 그러나 5월 31일 이후 등판기록이 없었다. 구단도 한동안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인터뷰를 통해 그가 백혈병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데이브 로버츠 내셔널리그(NL) 감독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다"고 감동을 숨기지 않았고, 알렉스 코라 AL 감독은 "우리에게선 야구 이상의 것이 있다. 모두가 카라스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추모의 시간도 있었다. 이날 AL의 3번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출장한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즈)의 등번호는 45번이었다. 자신의 상징인 27번이 아닌, 지난 2일 별세한 스펙스의 등번호였다. 스펙스는 텍사스 원정경기를 앞두고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없었다. 트라웃은 "스팩스와 그의 가족 모두 좋아할 것이다. 오늘 밤 우리를 지켜보길 바란다"고 비유했다.

코라 감독의 말처럼 야구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진심은 그 중 하나다. 올해 MLB 올스타전은 다양한 가치가 빛났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클리블랜드 셋별’ 세인 비버, MLB 별들의 전쟁서 ‘환상의 KKK’

대체선수 비버, 올스타전 MVP ‘인생극장’

마이크 마이너 대신해 생애 첫 출전
5회 등판 공 19개로 세 차례 삼진쇼
홈 관중 앞에서 인생 최고 순간 장식

떠오르는 셋별이 일을 냈다. 대체 선수로 2019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 무대를 밟은 세인 비버(24·클리블랜드)가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해 자신의 이름을 빛냈다.

엄청난 삼진쇼를 펼쳤다.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의 비버는 10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MLB 올스타전에서 5회 구원 등판해 세 차례 삼진으로 1이닝을 완벽히 지켰다. 올스타전 출전이 무산된 마이크 마이너(텍사스)를 대신해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를 밟은 비버는 공 19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MVP의 영예를 안았다. 비버의 호투를 발판 삼아 AL 올스타는 내셔널리그(NL) 올스타를 4-3으로 꺾고 7연승 행진을 달렸다.



’2019 MLB 올스타전’ MVP에 선정된 아메리칸 리그(AL) 세인 비버(클리블랜드)가 10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배트 모양의 트로피를 반짝 들고 활짝 웃고 있다. AL 5번째 투수로 등판한 비버는 1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으며 홈 팬들의 환호 속에 MVP 영광을 안았다. 클리블랜드(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비버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별들의 잔치'로 꾸며졌지만, 홈구장의 마운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덕분에 1-0의 근소한 리드 속에 등판해서도 공격적인 투구를 펼칠 수 있었다.

비버는 첫 타자 윌슨 트레라스(시카고)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올스타전 데뷔 무대의 긴장감을 떨쳤다. 곧장 케텔 마르테(애리조나)에게는 7구째 결정구로 너클 커브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풀카운트까지 승부를 이어간 로날드 아루나 주니어(애틀랜타)에게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속아내 'KKK행진'을 완성했다. 비버에게는 홈팬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쏟아졌다.

5회 말 한 점을 더 달아난 AL 올스타는 8회 2실점 하며 마지막까지 NL 올스타의 거센 추격을 받았지만, 적체적소에 보태진 추가점으로 4-3 승리를 낳을 수 있었다.

이날 비버의 뒤에는 3만6747명의 관중이 있었다. 2018년 빅 리그에 데뷔해 여연히 새내기급에 속하는 비버로선 놀라운 광경이었다. 비버는 "공을 던진 뒤 나도 모르게 마운드에서 내려섰다. 너무 많은 팬들에 둘러싸여 미처 위를 전부 올려다볼 수 없었다"고 돌아보며 "내 몸의 모든 느낌을 잃은 기분이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최근 10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전적			
연도	장소	스코어	MVP
2010	애너하임	AL 1-3 NL	브라이언 매켄
2011	피닉스	AL 1-5 NL	프린스 필더
2012	캔자스시티	AL 0-8 NL	멜키 카브레라
2013	뉴욕(시티필드)	AL 3-0 NL	마리아노 리베라
2014	미니애폴리스	AL 5-3 NL	마이크 트라웃
2015	신시내티	AL 6-3 NL	마이크 트라웃
2016	샌디에이고	AL 4-2 NL	애릭 호스머
2017	마이애미	AL 2-1 NL	로빈슨 카노
2018	워싱턴	AL 8-6 NL	알렉스 브래먼
2019	클리블랜드	AL 4-3 NL	세인 비버

※ 총 전적은 45승2무43패로 AL 우세

모르겠더라"고 했다. 이내 "하지만 모든 응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에 흠뻑 빠져 들었다"고 웃었다.

우연히 찾아온 올스타전 출전 기회를 선수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장식했다. "이런 올스타전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비버는 "나에게 이처럼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팬들에게 말로는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며 벅찬 감정을 전했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투데이 픽

환희·감동·심쿵의 파노라마...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MLB 올스타전 첫 참전기'



1 '내셔널리그 선발투수' 류현진(LA 다저스·가운데)이 10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2019 MLB 올스타전'에 함께 출전한 팀 동료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 레드카펫 행사에서 아내 배지현(오른쪽) 씨와 다정하게 입장하고 있는 류현진. 3 자신의 이름이 걸린 오픈카에서 아내, 부모님 등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4 능률한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했고 5 동료들과 오래도록 추억이 될 순간도 사진으로 남겼다. 6 이름이 영문으로 새겨진 커다란 기념 판도 눈길을 끈다.

“잠 깨보니 바로 옆에서 강지환이 성폭행을...”

강지환 만취후 자택서 여성 성폭행
여성이 구조 요청 현장서 긴급체포
TV조선 '조선생존기' 존폐 기로에

연기자 강지환(조태규·42)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0일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간강 혐의로 9일 밤 10시50분경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지환은 이날 소속사 직원 및 스테프와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서 2명의 여성



강지환

의주스태프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중 한 명이 9일 밤 9시41분경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강지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여성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에서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 이들이 자고 있던 방이

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날 경찰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바로 옆에서 강지환이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걸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내 옷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여성의 진술에 엇갈리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지환은 광주서에 유치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남 분당경찰서에 입감돼 있다. 이날 광주경찰서 정수은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체포 후 광주서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분당서에 입감했다”며 “10일 오후 담당 수사관이 분당서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건으로 강지환이 주연하는 TV조

선 토일드라마 '조선생존기'가 존폐 위기를 맞았다. 총 16부작인 드라마는 7일 10회 방송을 마쳤으며, 12회까지 촬영을 완료했다. 남은 4회 촬영은 강지환 분량이 워낙 많은 탓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V조선 관계자는 이날 “13·14일 결방하고, 재방송 편성도 취소한다”며 “향후 방송 여부는 제작사와 논의 후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음주 예정이었던 간담회도 취소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 조기종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강지환은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 배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